< 아시아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마무리 짓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52911 심현정

18년도 2학기가 끝나고 에세이를 쓰게 되면서 왜 ‘아시아공동체론’을 선택했을까 떠올려보면 역시 교환학생을 지내며 숱하게 느꼈던 인종차별과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학기, 백인을 제외한 인종은 거의 전무했던 유럽국가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때때로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인으로 불렸다. 친구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탈리아인, 체코인, 프랑스인 또한 유럽인으로 설명하며 유럽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에 비하여 나는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아시아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걸 항의까지 할 정도였으니 아시아공동체라는 말이 충격적이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유럽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 대적하는 듯한 ‘아시아공동체’라는 말에 왠지 모르게 호감도 갔다. 공동체보다는 ‘아시아’에 집중하여 수업에 집중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다짐은 첫 수업부터 어긋나버렸다. 서양이 일방적으로 동양을 규정하는 의미로서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다시금 분노를 일으키긴 하였지만 아시아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흥미로웠다. 나에게 아시아란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와 ASEAN, 몽골, 어쩌면 인도 정도만 포함한 좁은 개념이었으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에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아시아로 규정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아시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시아가 절대적인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시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아니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아시아가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아시아라는 분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굳건히 지켜오던 아시아의 지역적 개념을 놓자 더 많은 궁금증들이 쏟아졌다.

그 이후의 수업들은 이런 질문의 해결을 도와주는 힌트 같았다. 매 수업은 직접적으로 왜 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시아가 무엇인지, 어느 수준의 공동체를 이뤄야 할지 같은 문제의 답을 준 것은 아니지만 파편적인 강의들을 나의 의견으로 이어가는 재미가 있었다. 한 강의지만 몇 가지 의견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국제(노동)이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국가간의 국경선이 낮아지고 민족이 다수의 국가로 이주함에 따라 민족국가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노동시장의 격차가 더욱 커져서 개도국의 지식인층도 선진국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공평한 분배방식이 아닐 수 있고 많은 노동이주가 귀환이주라는 점, 노동의 임금이 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부분에서 어쩌면 민족국가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했다.

공동체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며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그 모습을 달리 해야 한다는 수업과 일방의 경제협력, 통합이 결국 ASEAN이 동북아에 경제적 종속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충돌한다고 생각했다. 공동체란 결국 국가의 적대감정이 사라지고 일방의 지배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아시아 공동체라는 담론은 결국 강자의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한 주의 수업을 들으면 어떤 질문은 갈피를 잡고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났다. 기말고사 직전 수업까지 아시아공동체란 무엇인지, 필요한지, 민족국가는 정말 해체될 수 있는 것일지, 과연 국제 정세가 민족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했다. 윤강은 호불호가 갈리는 수업방식이라고 생각했고 수업이 매번 끊기는 느낌이 들어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이 수업에서는 최적의 교수법으로 보인다.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답은 없지만 우리는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당면한 세대로서 고민해야 한다. 만약,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이 아니었다면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문제여서 나의 의견이라고 할 것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의견을 만들고 그 근거를 채워가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제 정세를 이해할지 기준이 생긴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